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THE GOSPEL NEWS

교역者長老合同研修會 성대

本總會傘下 교역자·장로가 合同하여 夏期 研修會를 가지자는 결정을 작년 총회시의 교육국의 건의를 채택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一九七三年도 교역자·장로 연수회를 七月17일부터 19일까지岡山県山根田郡奥津温泉에서 「오늘의 牧會」라는 主題를 걸고 開催하기에 이르렀다. 이 研修會를 위해 韓國大邱嶺南神學校長이며 大邱第一教會牧師인 李相根博士의 主題강사를 모시게 되었으나 오시지 못하고 德成女大교수인 池明觀 장로가 강연하였다.

貧困・抑圧에서 解放을

討議
 修會 성대
 의의 강행군속에서라도
 은 목적아래 기도와 힘
 을 다해 일하고 있는 동
 역자의 모습을 대하며서
 로 위로하고 친교를 나
 누는 호모합을 가지게 되
 었다.
 그런데 이번에 토의된
 선교기본정책안은 하기에
 개최되는 本總會산하 각
 단체(각지방 부인회·청
 년회등)의 하기수양회등
 에서서도 토의될수 있게
 하기위해 日本語訳도 完
 了하였다.

低開發國家의 問題 其他
여러가지 方面에서 苦悶
하는 垂直的의 問題에 대
해 앞으로의 打開策을 연
구하게 되었다.

이번 大會에서 是러
한 어려운 問題를 결며
지고 C A의 새로운 方
向을 摸索하며 나갈 責
任의인 總幹事의 선출이
注目을 띄게 되었는데,
싱가폴의 아치비숍인 얍

正義와奉仕部門의 로 李仁夏牧師가 었다.	任員으 선출되
本總會총무보좌 崔京植牧 師는 총회대표로 參加하 고 지난 20일 無事히 帰 任하였다.	

**韓日教会協
議會 終了**

이런	渡日目的의	하나이
었던	軍牧을 위한	오토
바이	기증운동에도	큰성
과를	얻었다.	
지금	한국교계에서	전
개하고	있는	「全軍信者
化운동」은	國軍全体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운
동인데,	이를 위해	국군
에	배속된	군목들의
도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	기증을	받고있

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을 뿌렸고 플레카드를 들고 행동대원이 4개의 방향으로 군중을 유도,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면서 중앙방 송국을 점거, 중앙청을 비롯한 관서들을 점거한 계 회 등 내란음모를 기도했다. 以上 신문에 보도된 内

것이라	하겠다.	二泊三日	까지	상당히	치밀히	짜
點에서	열리게	되어	자	다.	그리하여	19일
못	큰	意義를	따게	된		
策案을	세우려고	하는	時	기본정책	(안) 李仁夏	홍준무
침	本總회의	宣敎基本政		5시간에	걸쳐	선교
장로	合同研修會는	, 때마		이	있을	후
的으로	한	이번	교역자	·		
위한	진지한	論議를	目	걸친	池谷寺의	主題강연
牧會	狀況을	再검토하기		메운	二回(合4時間)	에
教會를	中心으로	「오늘의		된	스케줄에	의하면
在日大韓基督敎	傘下의			의	짧은	時間속

총회임직원
회도개최

여지 프로그래밍과 열띤논
총회임직원
회도 개최
이이 敎役者・長老 研修會에
위위원회와 재정국회, 그리
고 총회임직원회가 19.
20일 양일에 걸쳐 열렸
다.

지 싱가폴에서 열린 C	지 싱가폴에서 열린 C	로 나누어 진지한 토의
A(亞細亞 기독교 협회)는 15個國約 3百名의代表가 參加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는데 「亞細亞의苦悶에 있어서의 기독교자의 행동」이란 주제로 아래三個分科 ①매시지와 김유니케순 ②生活抑壓에서의 해방 그리고 ③正義와 奉仕經濟的인苦難속에 있는	의 現況을 分析하며 기독교의 책임행동을 추구하였다. 특히 亞細亞에 있어서의專制主義・帝國主義植民地的形態의體制下에 놓여있는民衆의民權의回復되는社會正義	를 거듭하였으며 亞細亞의 追

때까지의 12個機構을 三部로 統合개편하였으며, 大會任員도 거의 全員개선했었다. 그런데 議長團의 一員으로 韓國의 姜元龍牧師가 派選되었고 都市産業道局幹事에는 吳在植氏가 留任되었으며,

으며, 앞으로는 총회내의
역할에 대해 친지한 토
의가 있었다. 또한 函國
指導者의 친신을 위한 총
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
다. 본교단에서는 이인하
총무가 참석하고 귀임하
였다.

『朴炯圭牧師
拘束事件』

▼지난 7월 6日 国内外
各新聞發表에 보면 『서
地檢公安部는 現政府

EXODUS

하나 그들이 보기에 어
리석은 왕이란 말은『독
재』를 의미하는듯하다.
정부가 聖職者를 拘束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중
거와 신중을 신중을 다
했음것으로 알기나와 여
하든 피차 유감천만이라
아니할수 없다. 유감천만

関西・中部 復興運動 3成果

한경직·이권찬 목사 인도

大阪教会

지난 6월11일에서	17	매일밤 초만원을 이루었
일까지 大阪교회에서	창	고 구도자가 2백3명에
립53주년 기념대전도회를		달하는 큰 성과를 거두
개최하였는바, 특별강사는		었다.
서울 영락교회 원로목사		더욱 매일밤 집회에는
인 한경직 목사와 12년		많은 일본인들도 참석하
간 대한예수교장로회 전		여 동시통역에 의하여 많
도부 총무였던 이권찬목		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사가 담당하였다.		금번 大阪교회에서는 전
이권찬 목사는 새벽기		에없는 전도열이 일어났
도회와 전도론 강의, 한		으며, 온 교우가 단합하

京都教会

한편	6월 22일부터	24	員과	2백2명의	새	등
일	밤까지	韓景職牧師는	목자를	얻은것은	경도교	
京都敎會에서	特別伝道大		회사상	최초의	일이며,	
會를	가졌다. 이번	전도	특히	同胞社會의	民団指	
대회를	위해	京都敎會는	導者들과	有力한	企業人	
敎人總動員한	逐戸伝導와		有志들과	日本敎會의	牧	
비라	6千枚, 라디오	텐	師, 信徒들의	伝道協力에		
레비放送	또한	京都신문	감사하고	있다. 경도교회		
보도등으로	최선의	준비	홍복사는	강사	한정적목	
를	하였으며	每집회에	2	사를	도와	영락교회에서
50명以上	최고	3백50	무한	바있다.		

岡崎教会

信徒의 3 배모여



이 권 찬 목 사

교역자와 성도들이 합심
협력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岡崎시에
사는 우리동포 약 3백
호를 축호전도하고 오후
에는 한국 기독교방중국
상무이사이며 局牧인 李
權燦목사를 모시고 특별
집회를 가진바 삼일간에



이 권 찬 목 사

岡崎교회 (李海春목사시
무) 에서는 지난 6月23
日 24日 삼일동안 본교
회와 중부지방 각교회의

오늘의
焦点

어제의 **焦點**
 지난 六월 一 일 도쿄
 (東京) 신쥬구(新宿) 역
 에서, 또한 동 二 일에도
 다카다노바마 高田馬場
 역에서 우익계 학교인 고
 구쵸칸(國士館) 대학 학생
 에 의한 조선종교 급한
 교 학생에 대한 집단폭
 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우익계통 학교 학생에
 한 한국·조선 학생에의
 폭력 사건은 이미 六二
 年부터 계속 많이 일
 어나고 있음을 잊어서
 는 안된다. 뿌리는 깊
 다는 말이다.

韓國軍牧에 오토바이

각 교회 특지자들 기증

關西地方에서 특별전도
집회를 인도하면서 특별
히 全軍信者化운동을 설
명하게 된 李權燦牧師는、

国士館大生の暴力事件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왜심각하냐 하면 첫째로서 이와같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으로부터 五十年전의 소위 「閔東大震災」 때의 한국(조선)인 이 사건이 심각하다와 조와(昭和) 시대는 적어도 「재일교포」에 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이다. 무서운 일이라 할 수 밖에 없다.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사생활을 살피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따라서,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일본민중의 눈초리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일본의 메이지(明治)시대

와 조와(昭和) 시대는 적어도 「재일교포」에 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이다. 무서운 일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이 심각하다

国士館大生の暴力事件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사생활을 살피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따라서,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일본민중의 눈초리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일본의 메이지(明治)시대

와 조와(昭和) 시대는 적어도 「재일교포」에 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이다. 무서운 일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이 심각하다

朴炯圭牧師

EXODUS

拘束事件

▼ 지난 7월 6日 国内外
各新聞發表에 보면 「서
한국의 地檢公安部는 現政府

하나 그들이 보기에 어
리석은 왕이란 말은『독
재』를 의미하는듯하다.
정부가 聖職者를 拘束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중
거와 신중을 신중을 다
했음것으로 알기나와 여
하든 피차 유감천만이라
아니할수 없다. 유감천만

전북을 企圖한 서울 채 일교회 목사 朴炯圭氏等 15名이 檢挙되었다"한다. 사건의 真相은 지난 4 월 22일 남산에서 있었던 부활절연찬회에 모인 1만여 군중속에 『민주주의 부활은 대중의 해방이다』 주여 어리석은 왕

리는 일본의 이른바 「体制」가 떠는 본성(本性)을 본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명백한 원수모습으로 나타나 는 게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친밀하게 는앞에 나온다는 말이다. 조심해야 되겠다.

셋째로 폭력사건을 일으키게 한 일본학생들이 현대일본사회에서 뛰 떨어진 「선별 選別」 교육의 비참한 희생자임을 생각할 때 더욱 이일의 뿌리는 깊은 것이 고 민족차별과 교육차별이 여기에서도 오 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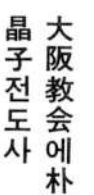
事를企圖했다면?...: 더
 으기非暴力的宗教指導者
 로서溫厚하고누구보다
 慎重한德望있는朴牧師
 가그렇게까지하였을까
 하는것이고둘째로는良
 識있는宗教人이그와같
 은사건에관련(?)되
 기까지切迫된普偏的民
 主主義危機를자아낸七
 〇年代前半의우리祖國
 을둘러싼狀況인것이
 다.

▼牧師가私利私慾이나政
 治的野慾 또는政黨의利
 用的媒介役으로政府를
 전복할반란계획에참가
 할수없는것은,마치信
 望을지닌主權者가私
 利로國民과歷史와神
 에대한반란계획에참가
 할수없는그이나마찬가
 지가아닐까.

祖國의장래와朴牧師
 를위한하나님의자비
 기도해마지않는다.

＝前号의 계속＝

지단 5월 20
 日 名古屋教
 會에서 持立
 한 徐又春長
 老는 慶南河
 東出生으로
 一九四〇年에渡
 日해 왔다.
 解放後 金永
 愛氏와 結婚
 하여 곧 누
 님(徐奉今집
 妻)
 年 入信하여 오랜동안名
 古屋教會의 집사로 시무
 하다가 이빈에 長老로 피
 신되어 장림을 받게 되
 었다. 喫茶店과 아파트
 를 경영하면서 오직 교
 회와 가정에 충실한 모
 범직 크리스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진은 徐又春장로夫)



信仰手記
세번

세번넘은 죽음의 고비 (3)

岡山教会金徳化

다. (사진은 朴 전도사)	크게 기대하게 된다 고하	로 전도사로서의 활동은	아 부임하게 되나 앞으	번 大阪 교회의 초청을 받	로 교회들을 역임한 후	울 한양 교회와 남대문 장	신 학대학을 졸업한 후	년 에 대한애 수교 장로회	동 전도사는 一九六一	六일에 부임하게 되었다.	완료되어 지난 五月二十	자) 전도사의 청빙수속이	阪 교회에는 朴 晶子 (박정	국에 청빙증에 있던 大	오래동안 女 전도사를 불렀
----------------------	---------------------	--------------------	--------------------	----------------------	--------------------	----------------------	--------------------	----------------------	-------------------	---------------------	--------------------	---------------------	--------------------	--------------------	----------------------

이 말씀은 내가 새벽
제 죽음에서 살아난 후
나의 고백이 되었다.
1972년 6월16일,
고국을 떠나 일본 오카
야마(岡山) 지역 선교사
로 파송되어온 나는 첫
음부터 일본의 선교가 어
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목숨걸고 최선을
을 다하면 되겠지! 하
는 각오와 사도 바울이 하
「응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수있다」

바운이	승배와	화된	국민의	일본	우상의	본은	정제국인	운것을	상했던	연	태를	착하여
가득한것을	미신	교포들까지도	생활에	국민은	제단이	그	자랑하는	깨닫게	그이상으로	일본에서의	파악하게	차차
보고	승상이	우상	거의	일본	가득하고	가든지	일	되었다.	어려	선교가	되면서	선교지의

제인양 배가 부르고
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
고 진리에는 눈이 어둔하
우며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는 강박해진 심령들
을 대하게 되는데 「무
지가 죄다! 하나님을 모
르는 무지가 죄다!」이
렇게 외쳐려 보기도 하
였다.

넌너노소 모두가 돈벌
기에 바쁘고 내 나라를
도 말도 모르는 교포들
에게 글을 가르치려 해
도 실재 무슨 필요성이
있는나고 거부하며 더우

게로 모이기를 게을리하
므로 때로는 두세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
는때 묵숨결고 최선을다
하면 되겠지 하던 결심
은 사라지고, 로맹나무아
래 있어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와 같이 좌절은
커다가도 이곳 선교를위
해 주야로 기도하며 물
질로 후원하는 모국교회
와 성도들을 생각할때면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러
기에 주께서 나를 이곳
에 보낸것이 아니겠는나
다시 용기를 내자! 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서 여호와와의 행사를 선
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
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
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

이 주님이 함께하시면는
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떠나와
던 것이다.

金 德 化

처음에는 기도할때마다 눈물이요 가슴이 타는듯 하였으나 차차 눈물도 마르고 기도의 힘도 전도도의 의욕도 없어지는듯하였다.

기	을	을	다
보이지	말하고	말하면	는
않는	신앙과	언제나	핑계로
하나님	구원	바쁘	일축해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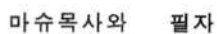
자신을 채찍질하며 결다
하는 것이었다.

일이니지 그날따라 온종일
자동차에 엔진이 걸리지
아니하여 애를 태웠다.
점검을 해보아도 별다른

訪美視察団의 편지에서

牧師 崔昌華

목사님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
마하大会의 소식을 이미
들으신줄로
믿습니다. 총
회는 총대
약 7백명이나
왔고 모두
2천명이나 모



는 韓國人少數問題" 가 온
랐읍니다. 먼저 의석에서
NY SYRON 代表인한
기범 위원이 실태를 설
명하게 되고 만장일치로
우리에 대한 결의문을 가
결하게 되었읍니다."

가결후 총회장 크린톤
M·마슈(MARSH) 목
사와 이야기하게 되고 앞
으로의 협조를 약속하였
읍니다. 또 사진도 함께
적게 되어 同封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간
곡한 인사를 전할을 들
었읍니다.

이것은 재일교포의 차
별에 대한 투쟁에 있어

KCC에 새인식을

館長 俞錫濬

KCC가 發足하여 二年期과 되었다. 나는 KCC의 책임자로서 二年間 여러가지 面에서 연구도 되었고 앞으로의 구상도 되어왔기 KCC에 對한 理解를 위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16년전부터 우리 宗會는 宗會修養館 건립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時代的 要求와 歷史的 變遷에 따라서 今日的 KCC로서만

생하게 된 것이다.
16년 전의 생각은 閑寂한 名勝地에 수양관을 설치하여 各樣 연수회장이 나 모용허 休息할 수 있는 場所가 必要하다는 회이었는데, 그동안의 世界教會운동이 變遷하는 時代的要求에 호응하는 方向으로 進行됨에 따라 宣敎는 安逸하고 平凡한 生活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現

예를들면 KCC는 普通事務所처럼 一定한 時間에 나와서 冊床에安然히 앉았다가 退勤시간만 되면 退勤하는 事務직원처럼 해서는 그 사업추진은 할수 없는것이 다. KCC의 프로그램은内容에 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해야 하는것이다.

나는 이번 訪美시찰을 통하여 우리의 할일이 너

인인은 좀더 생활에
된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종교적 태도는 내세를 위
한 수단이 아니라 내세
로 향하는 진지한 준비
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
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깊은
신앙도 없고 종교적 체
험도 없어요. 그래서 언
제나 제 의견을 밝히고
나면 비판을 위한 비판

一九七三年六月七日
C·J·H 올린

訂正謝過

本紙六月号(二面)「訪美
視察 마치고」의 記事中
「神戶教会 金瓊燦牧師」
婦任云々은 「広島教会金
信煥牧師」婦任으로 訂正
함과 同時 두 牧師님께
深々한 사과를 드립니다.
(편집인)

館長 KCC에

俞
錫
濬

로서 充足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活動프로그램은 보통으로는 이해키 어려운 多角의이며 行動的인 것

대하는
바이다.

(3 면에서 계속)

는
것이
선결문제라
여

하시는 일마다 은총이
(후략)
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못을 지적해 주시고 지

서 새로운 국제적 관심을
 을 이끄는 데 좋은 기
 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후
 략)
 그럼 총회와 목사님 위
 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
 하면서.
 六月六日 崔昌華 올림
 衆미국장로교회 교인수약

30萬, 교회수 8786. 사
진 미국장으로 교회 총회장
마슈 목사 와 최창화 목사
(편집자 주)
崔昌華牧師는 約一個月
간 에 정을 연장하면서인
권問題에 관한 미국교회
시찰을 마치고 7월상순
귀임하였다.

代인들이 要求하는 各
重要點이 무엇인가를
各한 總회는 地域社會
동으로 住民의 福利를
하고 在韓國民族의 主
體性確立、少數者의 權
을 擁護하는 善한 이
이 되기 위한 努力의 中
心體를 구성하고 KCC

무 많은 것을 깨닫고 責任의 重且大함을 痛감하는 바이다. 李清一·崔忠植 두 간사는 現在 美国에서 이러한 KCC問題 연구를 위해 二個月間 더 머물러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點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을 가한 것 같고 논리의
공간을 부린 것 같아 허
전함을 고백하지 않았을 수
없군요.

그러기 때문에 무척 부
족하고 미숙한 사상의 전
개가 되는 것인 줄 압니
다.

목사님의
훈령하신
의

不 動 産 業 務 全 般
土地・建物・山林売買・仲介・管理及び投資の御相談、不動産の事ならお気軽に御一報下さい。特に信者の方には遠近にかかわらず無料相談に応じます。

免許番号・愛知県
知事(1)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 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 大栄ビル)
電話 (052) 682-1177 (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1406の3
電話 (052) 771-5952

자신을 채찍질하며 결단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좌절과 결단의 날이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덧 내가 일본에 들어온지 꼭 6개월이 되던 一九七二년 12월 16일의 일이었다.	그날 밤은 구라시끼시(倉敷市) 미즈시마(水島)에서 시민 크리스마스행사가 있어서 미즈시마교인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성탄과 열말이 다와 바쁘게였으므로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서둘렀다. 그러나 웬	일인지 그날따라 자동차에 엔진이 걸리지 아니하여 애를 태웠다. 점검을 해보아도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시민 크리스마스에는 전차를 타고 가려고 나섰다. 한 번더 엔진을 걸어본다고 한 것이 마침 엔진이 걸렸다.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이 불행의 출발이 될 줄이야!	때로 인간은 자신의 지나친 고집으로 인하여 자신의 계기와 사랑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계속)
----------------------	--	---	--	---	--	--

|| 金桂昊牧師の主張に反論する ||

本紙六月号に、金桂吳牧師は「帰化人は同胞でないか」という一文をよせ、次のように主張している。——いわく、帰化人もわれわれと同じ民族精神・習慣道徳をもち、同胞社会に協力する在日同胞の一部であるから、国籍を問題にしてかれらを締め出すべきではないし、在日同胞に帰化人をも含めた方が大きなパワーとなる、というのである。

これは一見、円満なもつともらしい意見のようにもとれるが、そのうらには重大な問題点を含んでいるので、指摘したい。

まず「同胞」という意味が何であり、何のための同胞なのだろうか。「同胞」とは元来「血」を分けた兄弟・はからの意味のことばである。だから金牧師の主張しているように、帰化した人もわれわれと同じ血を分けた「同胞」であることにはまちがいない。

わが同胞が帰化をして日本に住みついたのは、今にはじまったことではなく、古代からである。帰化とはその国に帰属することを意味し、わが国から渡ってきた多くの人たちが集团的に日本各地に住みついて帰化

したと伝わる。古代だけでなく各時代をとおして断続的に人は渡ってきたし、近頃、日本の韓国併合以後無数の同胞が日本に來たが、一九五二年以後の婦化人とその家族だけでも二〇万人を越えるといわれる。以上のような事実から、かつて賀川豊彦は、日本人の60%は韓国人の子孫だ、といったことがある。つまり全日本人の60%にあたる6千万人がわが同胞であるわけである。しかし日本人の中のものという人がわが同胞にあたるのかわからない。それこそ「まぼろし」の同胞で

としての連結力をもたないところ、共通の利害と榮辱と運命のもとに結ばれた主観的な人間集団があるそれは「民族」である。同胞」ということは元来「兄弟・はらから」の意味であるが、また「民族」として同胞の意味もある。われわれが「在日同胞」というのは、民族としての意味であって、まさか6千万人の「まぼろし」の同胞を意味すまい。

だから「民族」の要件は必ずしも血が問題ではない。世界中どこにも単一の血筋を保存している民族は存在し

帰属意識の共同体であろうと私は思う。帰属意識があれば、母国語や自民族固有の習俗を身につけていなくても民族から締出されることとはないし、反対に、民族文化を保有していても、帰化をして民族を去ることもできるからである。つまり民族的所屬の決定は、それによって人のもつ自民族への価値観であろう。

だから、同胞がなぜ帰化をするか、ということとは、まず民族への価値観の転換からはじまる、といえる。日本への精神的同化による自民族の価値の喪失である。

間から人の体質が変わることはない。また在日同胞のうち、帰化をしない人でも意識や生活態度が帰化人変らない人の多いのも事である。それでも、「国籍は人につきまとい、まだ国籍のあるうちに民族的自覚をもつこともあり得る。」かし、帰化は少なくとも本への帰属意識の表明であり、子や孫の「まぼろし」化への第一歩である。帰化人が民族団体に協力するいうが、単なる協力ならぬ本人もするものがある。帰化をした後、民族意識を戻したとすれば、帰化

なかりをもつものを除いては、彼らは法律上でも日本人であり、われわれと直的なつながりをもつ方法根拠もなくなっている。年がたたないうちにもう「まぼろし」の同胞となたのである。これは、在同胞のような場合とは大きく異なる点である。なぜだか？これこそ在日同胞の核心である。本国のいわゆる在外同胞問題研究までもが在日同胞は在米胞のように、日本の国籍取得して韓国同胞として生きるべきである、というとはをよくきく。これは

の国—憧憬か現実か
イエスと神の国 (1)
横浜教会牧師 金 君 植

ものなのだ。

イエスの使信における
の国の内容は何であらう
イエスは神の国につい
の教えを説かなかつた。
は御国の現実を宣教し、
きたのである。主の御
がわたしに宿っている。
しい人々に福音を宣べつ
えさせるために、わたし
聖別してくださったので
る。囚人が解放され、盲
の目が開かれることを告
しめ、打ちひしがれてい
ものに自由を得させ、主
恵みの年を知らせる(ル
4・7) イエス・キリス

ます注目すべきことは、
の「神の国」という概念
イエスは弁証的な意図を
つてつかっているという
のである。シナゴグ的な
味における「神の支配」
理解に対してイエスは反
する。ラビたちの教える
ところによれば、神の支配
承認は、唯一神を告白し
偶像を排することであり
神の王国は「終りの時」
あらわれるという。イエ
も、神の国を民族的自由
動と混同したり、あるい
従来の意味における、一

つは運スに、のと対の意をもこ

어느 한국 여대생의 편지에서

五萬圓에서 六萬圓에 걸
 處 韓國大都會에서 열린
 빌리그랜트傳道團의 소식은
 本紙의 독자들도 대강 周
 知의 사실로 안다. 더욱
 기서울大會는 대단한
 盛況을 이루었다 한다.
 매집회에 五十萬名을 초
 과한 同전도대회 마지막
 날에는 百十萬(大會총발
 리스친의 偉力을 誇示하
 려는 夙願과 그 크리스친
 에게 最大限의 好意를배
 품으로 말미암아 관용(寬
 容과 官用)을 보이려는
 相對편이 異越同舟格으로
 合力(?)하였기에 그 盛
 況을 이루었다는 해석
 을 많이 듣게 된 것이었

거나 잘못된 것들은
니었을까 염려되기도
음니다.

그간 한국에는 빌리그
레함 단체가 왔다 갔을
니다. 한국에서의 그 저
도 사업은 큰 바람을
물고 간 것 같습니다. 기
기서 전 여러 문제점을
거다 주고 있다는 것은

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해
석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형식화해야	할까요?	이
러한 사건은	지난날 대	
통령 선거	당시 여당후	
보의 서울	유세에서	각
동별로	팻말을 들고	돈
원되었던	군중을	연상케
합니다. 그	당시 유세장	
소에	밀집한	유권자는 어

그 의견엔 아낌없이 감하는 편에 서고 싶으니다.

이 전도대회가 서 열리던 첫날 대구 동산 기독교 대우촌 치료실에 여의사 한사람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들이 별안간 식도곤

인은 전도 내용이
세속적이고 가장 기본
인 것이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
읍니다. 「여러분 고만
럽습니까? 그렇다면
나눔을 믿어 보십시오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라든지 「여
분 천당에 가지겠습니

교회를 맹신으로 다
던 시대는 지나갔습니
이제는 종교는 지성의
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
다. 우리의 할아버지
들이 믿던 천당
의 신관대 같은 종

神の王国^{メシヤ}の人の子^{メシヤ}といった概念新約聖書にもでてくるが単純にもとの意味のまま新約聖書に引用されているのではなく、解釈され、には内容的に変容してい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土 をつくることができない
は 支配はさげすまれてい
で 人々に対するよろこばし
音 音信であり、同時に非人
性 性をつくりだす如何なる
類 類の自己義認、愛のない
と に対するはげしい攻撃
も ある。

도인것 같아요. 교회에

神は、
ひきのにしたりする
て、
対して、イエスはこう言
れる。『時は満ちた。神
国は近づいた(マルコー
十五)と。これは、今や
の時が来た、神の支配
にはじまつている、終り
来た、ということである

입니다。 그렇다고 내세

量　　うは既そ・のわに

표)이 의도 五・一六
 広場을 메웠다고 하니,
 莊觀之事が 아닐수 없었
 을 것이다.
 그런데 이大会에 대
 해 인텔리 크리스천 사
 이에 두가지 見解가 널
 리 퍼지고 있었다. 물론
 大会의 크나큰 目的은 全
 民族에게 그리스도를 전
 하자는 거룩한 目的임은
 두말할것 없었지만 그 周
 辺의인 派생목적에는 開하
 는 것이다.
 “한국을 기독교국가로 인
 정”한다고 빌리자 그래
 정이 敬重하고 지나갔으
 나 “바람이 가신 뒤”
 어떤 韓國의 女大生이보
 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자는 홀로 新풍이지
 나간 五・一六 光장에서
 서 나라와 겨레 위해기
 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心정으로 이 편지를 公
 開하는 것이다.

다. 여하튼
장에는 신익 회씨의 한가
변 연설 이래로 한국에
서 최대의 인파가 모여
있읍니다. 과연 종교의사
업도 이렇게 대량화해야
효율적인지 남들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우석
것은 그 많은 청중들
거의가 기존 교인이었다
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빈 집회는 전도가 아니

었고, 또
 몇 천을
 전도하며
 합 전도대
 말 아래
 과연 어떤
 지고 있었
 러한 전도
 필요하지
 암을 수 없
 제가 알고
 학생이 신
 런 이야기
 빌리 그래
 전도 집회
 의를

을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 환자는 기적적으로
생했지만 전여치구니가
있어요. 아무리 큰 집
가 있기로 생명을 지
는 병원마저 이런 처
를 하는 태도는 오직
신적인 사람들이랄수
없는것입니다. 아직
그런데에서 탈피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
사는 불쌍한 종교인이
후자쪽이라면 분노를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고교	한말	로	내세	행	비	새	심	당	한
교	일	종	의	키	리	로	하	국	국
회	신	교	성	고	그	운	면	교	교
에	의	를	취	농	래	개	공	의	의
나	안	갖	위	은	하	혁	감	의	의
가	일	는	를	오	러	이	합	영	의
는	을	것	목	하		필	다	상	하
태	바	다	적			요	어	으로	하

한 실사 천담이라는
세가 어떤 형태로든
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할 방법은 없는 것
니다. 더욱 절실한 문
내세를 이해하는

대	제	입	중	있	내	또	가	의	을	될	심
종교화하려고 노력하는	억할	그러한	는	인으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의	서	수가	을	천당에	지옥
	적마다	그들은	현상들을	내심이	내면과	이기주의가	입교한	있읍니다.	유혹	이른다고	가고
	의식적으	내세	빛게	부리	생	되고	자	그리하	내지	사	선
				되니			들은	크	위험하	사람	조

것	로	기	되	환	종	단	여	는	면	만
랑의	수	덕과	상으로만	내세에	구될	렇게	활의	가	새로운	부족하는
표상이	있으며	윤리의	호르기보다는	얼매어	뿐이라는	이해하는	증진에다	성립할수	배제하고는	가치있는
되어야	현사회의	주체가		너무나	것임이나	태도가	두고	없다	조	나

(2面에 계속)

() 하사될도이다. 요그생직교나

イエスと神の国 (1)

横浜教会牧師 金 君 植

やさしい
神学

神の支配を一定の政治的領域、歴史的な意味における一つの領域、即ち「神の国」を代表する一定の民族に限定することにかわつて、個々の人間に救ひの招きを発せられる。「あなた方、貧しい者たちに救いが与えられる。神の国はあなた方のものなのだ。」

イエスは神の国をどのやうに理解したのであらうか。イエスの神の国の宣教は、神の支配をその内容としていることは周知のとおりである。だから神の国と神の支配は同義的に用いられている。大切なことは、イエスが比の概念をつかつている際の用法である。

イスエスの使信における神の国の内容は何であらうか。イエスは神の国について、の教えを説かなかつた。彼は御国の現実を宣教し、生きたのである。主の御霊がわたしに宿っている。貧しい人々に福音を宣べつたえさせるために、わたしを聖別してくださつたのである。囚人が解放され、盲人の目が開かれることを告げしめ、打ちひしがれているものに自由を得させ、主の恵みの年を知らせる（ルカ4・7）イエス・キリスト

の「神の国」という概念を、イエスは弁証的な意図をもつてつかつていたというこゝとである。シナゴグ的な意味における「神の支配」の理解に対してイエスは反対する。ラビたちの教えるところによれば、神の支配の承認は、唯一神を告白し、偶像を排することであり、神の王国は「終りの時」にあらわれるという。イエスも、神の国を民族的自由運動と混同したり、あるいは従来の意味における、一つ

「神の国」の概念はながい前史をもつが、旧約聖書において神の国の概念と密接な関係のある「神の支配」神の王国、メシヤ王、人の子といった概念は新約聖書にもでてくるが、単純にもとの意味のままで新約聖書に引用されているのではなく、解釈され、時には内容的に変容していることはいまでもない。

打ちひしがっている者に、神のあわれみを与えることである。即ち、問題は人間の救いてあつて、一つの国をつくることではない。神の支配はさげすまれている人々に対するよろこばしき音信であり、同時に非人間性をつくりだす如何なる種類の自己義認、愛のないことに対するはげしい攻撃でもある。

神の支配をある宗教的イデーに解消したり、神の支配の実現を「時の終り」にひきのばしたりすることに對して、イエスはこう言われる。「時は満ちた。神の国は近づいた（マルコ一・十五）と。これは、今やその時が来た、神の支配は既にはじまつている、終りは来た、ということであろう。

는	종교인으로서는	반아들	는	종교인으로서는	반아들
일수	없음니다.	개인의안	일수	없음니다.	개인의안
일을	바라는	교회라면심	일을	바라는	교회라면심
자가의	고난이	무색해질	자가의	고난이	무색해질
것임니다.	그리고	어렸을	것임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들던	천국과	때	들던	천국과
이야기는	인간의	마든가	이야기는	인간의	마든가
건물이	아니겠음니까? 또		건물이	아니겠음니까? 또	
한	실사	천당이라는	한	실사	천당이라는
세가	어떤	형태로던	세가	어떤	형태로던
다	하더라도	것들을	다	하더라도	것들을
명할	방법은	없는	명할	방법은	없는
니다.	더욱	절실한	니다.	더욱	절실한
는	내세를	이해하는	는	내세를	이해하는
대	종교화하려고	노력하는것	대	종교화하려고	노력하는것
도인것	같이요.	교회에서	도인것	같이요.	교회에서
는	흔히들	죄를	는	흔히들	죄를
지옥	가고	선행을	지옥	가고	선행을
천당에	이른다고	사람들	천당에	이른다고	사람들
을	유혹	내지	을	유혹	내지
수가	있음니다.	그리하여	수가	있음니다.	그리하여
서	입교한	자들은	서	입교한	자들은
의	이기주의가	되고	의	이기주의가	되고
교인으로의	내면과	생활	교인으로의	내면과	생활
인으로서의	내심이	분리되	인으로서의	내심이	분리되
는	현상을	빛게	는	현상을	빛게
그러한	그들은	내세를기	그러한	그들은	내세를기
억할	적마다	의식적으로	억할	적마다	의식적으로
종교화하려고	노력하는것		종교화하려고	노력하는것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세관을	배제하고는	종교	세관을	배제하고는	종교
가	성립할수	없다	가	성립할수	없다
내세의	가치를	현세	내세의	가치를	현세
환의	증진에다	두고	환의	증진에다	두고
렇게	이해하는	태도가요	렇게	이해하는	태도가요
구될	뿐이라는	것임니다	구될	뿐이라는	것임니다
내세에	업매어	너무나	내세에	업매어	너무나
상으로로만	호르기보다	는도	상으로로만	호르기보다	는도
덕과	윤리의	주체가	덕과	윤리의	주체가
수	있으며	현사회의	수	있으며	현사회의
랑의	표상이	되어야	랑의	표상이	되어야

夏期修養会に寄せて

朴 未 雄

昨年の全協の夏期修養会
は、事実上関東の青年が欠
席するという異常な事態で
あった。
今年も、やがて夏期修養
会の時期になろうとしてい
る。今年は、青年会運動の
基本的意味を踏まえ、提起
されている問題を受けとめ
つつ、去年のような経験を
くり返さないよう、今から
問題を整理し、夏期修養会
を充実あるものとしてい
たい。
青年会運動の目的を二つ
にすれば、①交わり、②直
面している課題に
対しての具体的な活動、で
ある。
まず、交わり、これは信
仰者相互の信仰を高め合う
ことに帰着するが、分りや
すくいえば、親睦を深め、
積極的な交友となることと
ある。
お互いに生活のことや信
仰のことについて語り合っ
たり、仕事の話に花が咲い
たことが後になって貴重な
体験となる。そしてこの交
わりを通して、信仰者の生
き方を学ぶことができれば
こんなにうれしいことはない。
一つだけ問題点を上げる
とすれば、この三回ほど出
てみて感ずることは、同じ
教会の者だけで固まってし
まって、他の教会の者がと
ても話しにくい傾向がある
ように思ふことである。
確かに多人数出席した教会
の人々はそれで良いかも知
れないが、一つの教会から
少数しか出席できないもの
にとっては、せっかく新
しい友人との出会いの期待
がくじかれてしまうことに
なりかねない。お互いに
交わりについては十分に相
手を配慮しつつ、主にある
手を配慮しつつ、主にある
交わりを深めてゆきたいと
思ふ。
次に、今直面している課
題であるが、この数年、論
争の中心点であったいわゆ
る、民族と社会的問題(特
に差別や偏見の問題)との
関わりが信仰者においてど
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実
際の生活の場でのどのように
具現化されてゆくのかが、と
いふきわめて神学的な課題
である。それが私達の生活
に直接結びついている故に、
いわゆる民族派と社会派の
対立は青年だけの問題では
なく、在日大韓基督教總會
全体の課題である。
この民族派と社会派の対
立について私見を述べれば
両者は根本的に矛盾、対立
するものではない。現象的
にいえば、差別や偏見等
が、民族の稀薄化を促
進させることによつて、正
義や主体性を奪い、民族
や歴史に對して「没
主体性(民族的稀薄化)」を
生み出すという悪循環が起
き、人格の破壊」という終
着点に向かうのである。即ち
この二つを中心とした問題
は、互いに有機的かつ相互
的關係を持つ故、一方が他
方を促したり、お互いに参
与、促し合う、相互作用な
もので、事態は一つのもの
として把握できるのである。
ただ一つだけ明確に踏まえ
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
とは「民族問題」は我々が担
うべき、我々固有の問題であ
る。差別、偏見等の問題
は、日本人々とも連帯で
きるものであり「民族の間
題」を縦のつながりとすれ
ば、この「差別、偏見の間
題」は横のつながりである。
この縦のつながりと横のつ
ながりとを正しく位置づけ
る、このことが大切である。
この点において、民族派と
社会派の対立があるように
思ふ。私見によれば、例え
ば、横のつながりを主張し
た、崔勝久氏の連年の論文
においては縦のつながり、
つまり「民族の問題」が暖
味にされておき、逆に、例
えば、縦のつながりを主張
した関西分科会の「崔勝久
代表委員のレコール」に関
する呼びかけ文」に於ては横
のつながり、つまり「差別
偏見の問題」が暖味にされ
ている。この縦と横のつな
がり方を正しく止揚できな
かつたことが不幸な対立を生
んだように思ふ。
然しながら、もうと大切
なことは、これらの問題が
私共の信仰において、どの
ような根拠に基き、位置づ
けられ、実際の信仰生活に
具現されつつ、われわれの
青年会運動に具体化するの
か、という問題である。
このことがこの数年、不
幸な対立に目を奪われて、
ややもすれば忘れられてい
なかつたか。
この点を忘れるならば、
内部分裂に到り、青年会運
動の基本的目標は到底望め
なくなる。
さて、先ほど述べた、信
仰において、民族や差別の
問題を、どのように位置づ
けるか、という問に對して
私見を述べて、この小論の
結びとしたい。

夏期修養会案内

関西地方会
女伝道会

- 日時：七月二十五日(水)
- 場所：小豆島
- 主題：愛の心、愛の力、愛の光
- 費用：約五〇〇円
- 講師：池田明氏、丁仁寿

関東地方会
女伝道会

- 日時：八月二日(水)
- 場所：御殿場 東山荘
- 主題：愛の心、愛の力、愛の光
- 費用：約五〇〇円
- 講師：吳九台牧師、李仁

祝結婚

- 新郎 金碩太君(金達植)
- 新婦 朴恩姫嬢(朴命俊)
- 黄義生牧師主礼 7月16日午後二時、名古屋教会

人事消息

- △朴在石牧師(기독교장로회총회장) 미국에서 귀국 드림. 7월 1일 주일
- △李和美(대한예수교장로회女伝道会全国연합회총무) CCA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 드림. 7월 1일
- △李和美(대한예수교장로회女伝道会全国연합회총무) CCA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 드림. 7월 1일

民族の進む道 (1)

韓 哲 河

現代生活の発展であり、またこれによる産業の発達と建設であるといえよう。もちろん、まだ民族のきわめて少ない部分が、このような現代的生活を享受しており、大半はいわゆる「近代化」の恩恵から脱落しているのが現実である。全人口の過半数を占めている農漁村人口は言うまでもなく、都市住民もその大半が住宅もなく、また住宅といつてもほとんどが今日の先進国の生活に比べる時、あまりにも大きな格差を免れないのである。こうした後進性を克服するために、今日、わが民族は全力を尽している。より多くの産業を復興させ、より多くの雇用の増大を図って、国民生産を高めた、国民所得を高めた、一言でいって、「われわれも西洋人のように良い生活をした」というわけである。
毎年外国から金を借りて産業施設を新設、また拡張占めていた彼ら日帝の圧制下「から」逃れ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も意味して
いた。
しかし、解放が、即ち今日の欧米の物質的繁栄と社会開発をわが民族が創建できるのだという保証にはな
りえないのである。もちろ
ん、現在も近い将来にも、
われわれがそのような物質
的繁栄をなしとげられるで
あらうということは期待で
きない。にもかかわらず、
今日の世界の全ての人々が
願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
わが民族も南北を問わずこ
れに向って前進しているとい
える。(編集部訳「基督教
教思想」一九六六年八月号
掲載論文。著者は現在イエ
ス教神学大学教授(統合側)
大学院長。(つづく)
(日訳・小杉次)

『靖国問題と戦争責任』

戸村政博編・新教出版社
(1973年)

良書紹介

この書物は「靖国問題」(一九七〇年)日本人と靖国問題(一九七一年)に続
く、実践が産み出した記録
と資料の集大成である。別
名をつけるなら「現代
キリスト者」政治参加の
実践記録」とでもいいだ
ろう。
現代日本におき「在日外
国人」(従って「在日大韓
基督教教会」の信徒も当然含
まれる訳であるが)を外側
から、つまり法体系として
規制しているものが、いわ
ゆる「入管体制」であるこ
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
では内側から締めつける
実体は何であろうか? 前
記「靖国問題」におき宮田
光雄東北大学教授は、……伊
勢神宮を中核とする神道国
教化は、日本国内における
宗教・思想の自由を抑圧し
たのみならず、更には「神
国」日本思想の鼓吹を通し
て、植民地における神社参
拝の強制や、「皇民化」運
動にみられるような帝国主
義的侵略政策の一翼を担
うに至った(八六頁)と述
べているが、ここに権力層
の内側からの抑圧支配の一
端がのぞき見えている。つ
まり、「靖国問題」とは帝
国主義的侵略・形態の現象
の一面であり、それは主
としてアジア諸民族、従っ
て「在日朝鮮(韓国)人」
を内側から押さえつけてき
た、今も抑圧している政治
的・思想的「管理体制」な
のである。だからこそ、こ
の「靖国問題」を担う人々
は、当然の帰結としてその
まなざしを「在日六一万」
に向けなければならない。が、
しかし実際は彼らのまなざ
しが「六一万」に向けられ
ることはないようだ。逆説
的に言えば、縦のつながりを主張
した関西分科会の「崔勝久
代表委員のレコール」に関
する呼びかけ文」に於ては横
のつながり、つまり「差別
偏見の問題」が暖味にされ
ている。この縦と横のつな
がり方を正しく止揚できな
かつたことが不幸な対立を生
んだように思ふ。
然しながら、もうと大切
なことは、これらの問題が
私共の信仰において、どの
ような根拠に基き、位置づ
けられ、実際の信仰生活に
具現されつつ、われわれの
青年会運動に具体化するの
か、という問題である。
このことがこの数年、不
幸な対立に目を奪われて、
ややもすれば忘れられてい
なかつたか。
この点を忘れるならば、
内部分裂に到り、青年会運
動の基本的目標は到底望め
なくなる。
さて、先ほど述べた、信
仰において、民族や差別の
問題を、どのように位置づ
けるか、という問に對して
私見を述べて、この小論の
結びとしたい。